

여수시 물놀이·야간 공연으로 시원한 여름나기

성산·여문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다음달 18일까지 무료 운영
27일 여수해양공원 일원서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 페스티벌



여수 성산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은 최대 400여명의 입장이 가능하다. <여수시 제공>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여수시가 지역민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돕는다. 시원한 물놀이를 위한 어린이 물놀이장을 무료로 운영하는 한편 잡 못이루는 무더운 밤을 즐겁게 하기 위한 페스티벌도 개최해 지역민들의 무더위를 날리겠다는 것이다.

◇ 물놀이로 시원한 여름나기 =여수시가 여름철을 맞아 성산공원과 여문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하고 다음달 18일까지 무료로 운영한다.

두 수영장 모두 3~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오전 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단 5세 이하 영유아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이용할 수 있다.

오전반(오전 10~낮 12시)은 온라인(여수시OK통합예약시스템) 예약과 현장 접수를 병행,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오후반(오후 2~5시)은 당일 현

장 접수만 가능하다. 성산공원은 최대 400명, 여문공원은 150명까지 입장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단, 매일 낮12~오후 2시는 시설 정비 시간으로 이용이 불가하며,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휴장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물놀이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했다"며 "시설물 수시 점검과 철저한 수질 관리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공연으로 열대야 극복 =오는 27일 여수해양

공원 일원에서 '2024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 페스티벌 페스티벌'이 열린다.

여수시는 이번 페스티벌은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 공연뿐만 아니라 버스커가 직접 참여한 대규모 퍼레이드로 여수의 밤을 더욱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퍼커션팀, 포니캐임, 엘카라도팀 등 총 8팀이 출연, 오후 7시부터 8시 20분까지 낭만버스킹 1번 존(중앙선어시장 맞은편)에서 시작하여 해양공원 주무대로 이어진다.

동시에 해양공원 주무대에서는 오후 7시부터 1부 공연으로 30분간 화려한 '파이어 퍼포먼스'가 준비돼 있으며, 공연 직후 2부로 '댄스 공연'과 '클래식 연주'를 연이어 선보인다.

퍼레이드팀이 합류한 오후 8시 20분부터는 '버스킹 합동공연'과 DJ혼디와 가수 김성수가 진행하는 '스페셜 EDM쇼'가 예정돼 있다.

여수시 축제 담당자는 "이번 공연이 여수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춘버스킹도 19일부터 8주간 매주 금요일마다 울전상가와 여문공원에서 공연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시 '운동주 테마 관광' 1인당 15만원 파격 인센티브

광양시가 운동주의 발자취를 잇는 테마여행에 통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내놨다. 광양시는 관광, 중국, 일본 등 운동주의 발자취를 찾는 관광객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운동주 테마 관광상품을 이용하는 여행업체 및 개별 관광객으로 광양에서 1박 이상 숙박하고 광양 소재의 식당에서 두 번 이상의 식사를 해야 한다.

다만 정병욱 기옥은 여행 일정 안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국외에 있는 운동주 관련 관광지 1곳 이상(중국: 운동주 생가, 운동주 묘, 명동학교, 용정중학교, 일본: 릿교대학, 도시사대학, 아마가세 구름다리, 교토 하숙집터)의 방문을 해야 한다.

여행업체는 관광진흥법 등에 의한 건설 여행업체여야 하며 개별 관광객의 경우 팀 대표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구성원 모두 광양 외부 거주자여야 한다.

관광객이 여행업체가 운영하는 운동주 테마 관광상품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사전 계획서, 여행일정표 등을 여행개시일 10일 전까지 광양시청(관광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고 재정지원 사항 등을 협의해야 한다.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은 여행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달 25일 이내에 지원금을 받게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미국 픽사 김혜숙 애니메이터 순천 특강 전국 예비 애니메이터 350명 몰려 성황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미국 '픽사 스튜디오'의 김혜숙 애니메이터 초청 강연회가 성료됐다. 순천시는 지난 18일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린 김 애니메이터(Animator·만화를 그리거나 만화영상을 제작하는 사람) 특강에 순천은 물론이고 광주, 부산, 천안, 나주, 무안 등 전국 각지에서 350명이 넘는 애니메이터 지망생들이 몰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김 애니메이터는 '글로벌 무대에서 애니메이터로 일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김 애니메이터는 "작년 미국에서 만난 노관규 시장님의 열정과 지역 청년들을 위해 꼭 순천에 방문해 달라는 공무원들의 진심에 감동해 어렵게 시간을 냈다"며 순천 방문 배경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그는 예비 애니메이터 픽사 스튜디오에서 근무하게 된 과정, 픽사의 창의력을 높이기 위한 작업 환경 등을 소개했다.

그는 "좋은 애니메이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찰력, 꾸준함, 소통력' 3가지가 필요하다. 영화, 광고, 미술, 책 모든 분야가 애니메이션의 재료가 될 수 있다"면서 "해의 스튜디오도 도전하라.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파트너들과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영어 공부도 병행하고, 후회 없이 시도하라"고 미래인재들에게 동기를 심어줬다.

참석한 학생들은 "수도권에서도 들을 수 없는 특별한 강연이었다", "순천에서 이런 기회를 자주 마련했으면 좋겠다", "전공 학생이라면 다들 공감했을 거다. 예비 애니메이터들에게 정말 힘이 되었다.



전국에서 350여명의 방청객이 몰린 픽사 김혜숙 애니메이터 강연이 지난 18일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열렸다. <순천시 제공>

는 시간이었다"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작년 픽사 방문을 인연으로 김 애니메이터를 어렵게 모셨다"면서 "순천을 애

니메이션, 웹툰 등 문화콘텐츠로도 세계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최대 2천만원 보장 곡성군민 안전보험 확대

응급실 진료비 등 5개 항목 추가

곡성군이 일상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로 부터 지역민을 지원하기 위해 '곡성군민 안전보험'을 확대했다.

곡성군은 올해부터 곡성군민 안전보험 항목을 5개 확대해 총 20개 항목의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보험대상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군민이다. 누구나 가입 절차 없이 20개 항목에 대해 최대 2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곡성군에서 전액 부담해 개별 보험료는 없으며, 개인별로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곡성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 난 사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곡성군은 지난해까지 총 15개 항목에 대해 보상을 했지만, 올해 7월 이후 5개 항목을 새롭게 추가

했다.

추가 항목은 '비탑승중 교통 상해 사망·후유장애(최대 500만원)와 독역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후유장애(최대 2000만원), 응급실 내원 진료비(10만원) 등이다. 추가항목에 대해서는 2024년 7월 1일 이후 피해 발생 시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비탑승중 교통사고의 경우는 보행뿐 아니라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유모차, 킥보드를 탄 사람이 운전 중인 교통수단과의 충돌로 사망 및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지급된다.

보험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보험금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손

해보험 콜센터또는 곡성군 안전건설과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일상 회복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피해를 입은 군민께서는 보장항목을 꼼꼼히 살펴 적기에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란다"며, "군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 재난 대비와 사고 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곡성군은 화재 사망, 개 물림 응급실 진료비 신청 등 총 4건, 2030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했다. /곡성=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보성군 차재배 농가 대상 친환경 기술·인증 기준 교육

보성군이 세계 차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보성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성사무소, 전남 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는 친환경 인증 차재배 농가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한 '친환경 재배 기술 및 인증 기준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8일 진행된 이번 교육은 보성군·농관원·차산업연구소·보성농자연합회가 체결한 '보성농자 안전관리' 업무협약의 후속 협력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번 교육은 보성농자의 안전성과 품질 우수성을 확보해 국제 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마련됐으며 차산업의 최신 정보, 친환경 재배 기술, 보성농자의 품질 유지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보성군에서는 차산업 지원사업 및 정책 설명회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지원사업과 정책을 공유했다.

농관원에서는 농가들이 친환경 인증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친환경 교육을 통해 인증 절차와 기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차산업연구소에서는 차 농가들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차 산업의 최신 동향과 현황, 그리고 차 신제품 육성 및 유기재배 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 상담문의: 062-449-4446